

## 학교시설 복합화의 활성화를 위한 에듀맥의 역할

### The Roles of EDUMAC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Community School

서 상 현\*

Seo Sang-Hyun

#### 1. 학교시설 복합화의 현재

##### 1.1 학교시설 복합화의 중요성

앞으로의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의 일부분으로서 지역주민에 개방되고 지역시설 또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위해 개방되어 경계를 허물고 유기적인 활용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BTL 사업을 통한 학교시설 개선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문화, 체육,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떠오르고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학교시설의 복합화이다.

학교시설 복합화란 지역사회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각종 공공시설과 학교를 복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식이며 다음과 같은 이점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시설 인프라의 이용으로 지역 기반 시설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의 자녀교육, 문화체육, 육아 및 노인 여가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지역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중심센터 역할로 중심점을 만들게 되며,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여유 있는 학교 부지를 이용해 지역에 부족한 지역기반시설을 건축, 활용함으로써 도시지역의 가용토지를 활용하고 토지매입비를 줄여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넷째, 학교는 별도의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시설 확충을 통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구도심 지역은 지가 상승과 여유 공간 부족에 따른 부지 확보가 어렵고, 도심 공동화 현상과 노후화된 학교시설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 여섯째, 신도심 지역은 급격한

택지개발에 따라 미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주거 지역 내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일곱째, 낮은 재정 자립도에 따른 투자여력 부족으로 장기간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했던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여덟째, 창의적 설계와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추구하는 민간투자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다.

##### 1.2 복합화 학교시설의 기능

학교시설 복합화는 교육시설과 다양한 시설이 함께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현재 가장 많은 접근이 이루어진 시설로서 주차시설을 들 수 있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 주차시설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주차 시설은 학교 시설에 미치는 교육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차 시설 이외에 주된 복합화 시설로서 수영장과 체육관 등의 체육 시설을 들 수 있다. 다만, 체육관의 경우 학교의 사용 시간이 많아 복합화 및 개방에 소극적인 반면 수영장의 경우 학교 측에서 관리 운영에 상대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어 다양한 운영 형태로 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서 일부 특별교실 등을 이용한 문화 시설이 체육시설과 함께 연계되어 구성되기도 하며 도서관, 컴퓨터실, 시청각실 등을 중심으로 정보도서관이 복합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도서관의 경우 기존의 대단위 도서관에서 세분화된 지역별 작은 도서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학교 복합화를 통한 작은 도서관의 지역별 확보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EDUMAC) 연구위원, 공학박사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노인 복지 시설의 확충도 대규모시설의 운영보다는 소규모로 분산 분포되어 사용자에게 근접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학교 시설 내 노인 복지 시설은 운영상의 측면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과 노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와 심리적 치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 내 근접한 보육시설의 확보가 학교시설과 함께 복합화되어 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보육, 노인 시설 등의 복지 시설 복합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보육시설의 경우 학교에 유치원 설립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만 0~2세까지, 유치원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0~5세까지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시설 복합화가 활성화된다면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통해 진정한 지역 중심 시설로서 학교의 역할이 강화되고 부족한 지역 기반 시설의 확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1.3 관련기관별 이해관계와 사업 추진상의 난점

학교시설 복합화에 있어 대상 시설에 따라 관련 부처는 다양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유아 보육시설은 여성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유·초·중·고 교육시설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시설 및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문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은 문화관광부가 주무부처이며, 재가노인시설 등의 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시행청도 교육시설은 교육청, 그 외 시설은 시군구로 나누어져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관련기관별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부족한 교육 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교

육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가 주민 생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교육청에서는 외부 재원에 의해 시설 확충이 이루어지므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며, 지자체의 교육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 시군구에서는 학교 부지를 이용해 문화 복지 시설을 건설하게 되므로 토지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앙부처에서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영유아 보육원과 노인 복지 시설 등의 복합 시설은 저출산·노령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의 중심에 문화 복지 시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지역 사회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용이해지며, One Stop/Spot Service를 제공받을 수 있고, 세대 간의 생활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다.

물론, 주관 기관별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학교 시설 복합화를 실현함에 있어 실제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학교 입장에서는 대상 시설에 따라 교육 분위기를 위해 하는 요인이 상존할 수 있으므로 이는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학교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여러 시설이 공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교육청과 시군구에서는 학교시설 복합화로 인해 재산권과 운영권의 분쟁 소지와 시설비 및 운영비 부담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사업 시기 및 의사 결정 구조가 상이하야 복합화 사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중앙부처의 입장에서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음에 따른 부처 간 권한이나 영역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산 편성 구조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관련 기관 입장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면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다. 첫째, 도시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복합화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즉, 택지 개발 기본 계획, 개발 계획 및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복합화의 개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개발 사업 시행자, 지자체, 교육청의 유기적 협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복합화는 사업 주체의 다양화와 관련 기관의 이익 상충으로 인해 일선 실무자의 의욕이 상실될 수 있다. 사업 주체별로 의사 결정 구조와 추진 일정이 상이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소유권 및 운영권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며,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육과 교육 등 영역 간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일부 교사와 학부모, 지역 주민의 반대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복합

표 1. 복합화 대상 시설 및 주관 기관

시설종류	이용 대상	대상 시설	관련 부처	시행청
보육시설	0~5세	영유아 보육원	여성부	시군구
교육시설	3세 이후	유·초·중·고	교육부	교육청
체육시설	지역 주민	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문화부	시군구
문화시설		도서관, 문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주간/단기 보호시설)	복지부	

화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 시 RFP, 평가, 협상, 협약, 모니터링 등의 BTL 추진 단계별로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 따라서 BTL 사업 방식의 복잡한 사업 구조와 다단계 추진 과정은 불안과 위험 요소를 내포하게 된다. 또한, 사업에 둘 이상의 주무관청이 관련되어 있어, 설계 협상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 운영비 재원과 운영 주체 등 운영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준비 과정이 미흡해질 수 있다.

## 2. BTL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모형

### 2.1 복합화 추진 시 BTL 방식의 필요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시설 제공은 아직도 많은 부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신속한 재정 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노후화된 기존 학교의 증·개축조차 미루어지고, 신설되는 학교의 시설 수준을 높이는 일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효과적인 교육시설 개선을 이루고자 교육시설 민간투자 사업이 BTL방식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함에 있어 BTL 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고 보조금 확보가 원활하며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용이하다. 중앙부처에서는 복합화 사업을 BTL 방식으로 추진 시 국고에서 보조되는 지자체 사업 보조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BTL 복합화 사업의 경우 다양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활성화 유도를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대상 선정 시 BTL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둘째, BTL 사업방식을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부지 및 건물을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성과요구수준서와 평가 항목, 배점 등을 통해 창의적 설계를 유인할 수도 있다. 셋째, 복합화 학교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민간운영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 단위 공공시설의 활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민간운영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BTL 사업을 통해 지역별, 용도별로 규모의 적정화를 기대할 수 있고 민간의 전문 프로그램과 자산 관리 및 경영기법을 적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 2.2 복합화 추진 단계 및 재원 분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시설 복합화를 BTL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효과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중앙부처에서는 복합화팀을 구성하여 복합화 지침을 시달하고 대상 사업의 선정 작업을 실행하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해 나가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력한 정책수단과 설득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 신축 및 개축 계획을 조기 수립하여 제공하며, 복합화 시설의 용도와 규모 적정성을 확인하고, 교육적 위해 요인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와 협의하여 복합화 추진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며, BTL 사업 단계에 따른 RFP, 적격성, 평가, 협상,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관련 시설의 용도, 규모, 관련 규정, 재무 부담 능력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예산 부서의 내부 조율을 통한 사업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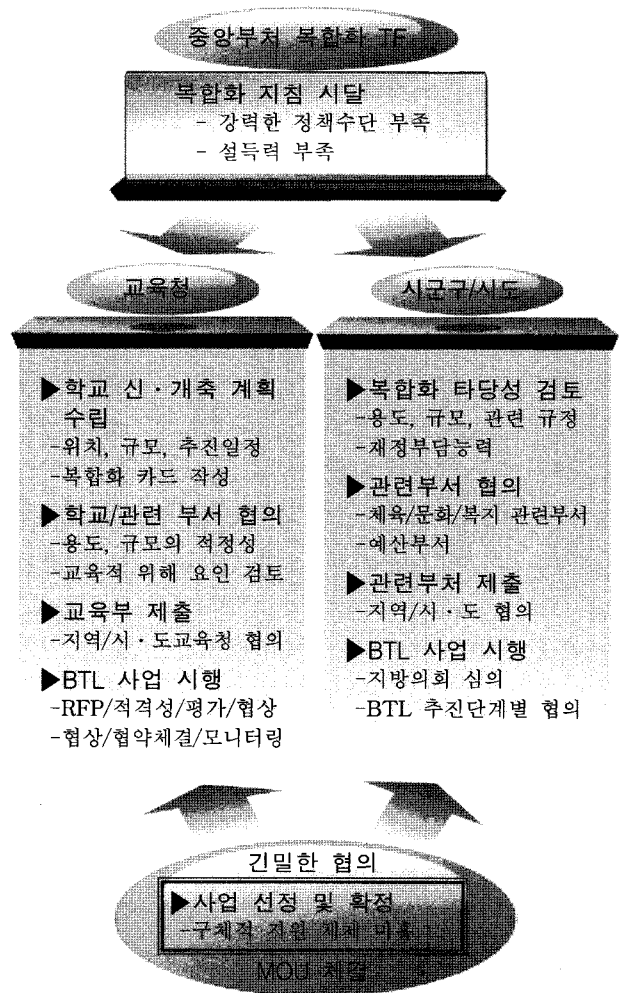


그림 1. 복합화 추진 단계 및 기관별 역할

표 2. 공공시설의 운영 주체 및 재원

시설 종류	운영 주체	재원
보육시설	지자체 직영	사용료, 일부항목 국고보조
체육시설	지자체 공기업, 비영리법인 위탁 또는 입찰	사용료
문화시설	비영리법인	사용료, 재정보조
복지시설	비영리법인	사용료, 재정보조
도서관	직영	사용료, 재정보조

획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사업 계획은 관련 부처에 제출되며 지방 의회 심의를 거쳐 BTL 사업으로 시행하고 추진 단계별로 교육청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사업 선정 및 확정이 이루어지면 MOU를 체결하게 되는데, 사업 선정과 확정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지원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면 교육청과 시군구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교시설 복합화의 추진 단계와 기관별 역할을 도표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복합시설은 용도별, 재원 분담 주체별로 귀속되는 소유권과 운영권이 다를 수 있다. 민간투자법 제19조(국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제5항을 적용하면, 학교시설은 사업비와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므로 그 소유권과 운영권도 교육청에 귀속되지만, 복합시설은 시군구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그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게 된다. 비목별 비용 부담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적격성 조사, 설계, 감리, 평가 등의 부대비용을 면적비율에 의해 분담하고, 공사비와 운영비는 협약 체결 시 제안서 및 설계 내용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보육 시설과 같이 건설비가 과소한 사업이나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재정사업의 경우에는 BTL과 재정방식(건설보조금)의 형태로 재원을 분담할 수도 있다.

재정사업에 의한 공공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직영 또는 비영리 법인에 의해 위탁 운영되거나 입찰에 의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다. 시설별 운영 주체 및 재원을 보면 <표 2>에서와 같이 보육 시설은 지자체 직영으로 사용료와 일부 항목에 국고 보조를 받아 운영하며, 체육 시설은 지자체 공기업이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또는 입찰을 하여 사용료를 받아 운영한다. 문화 시설과 복지 시설은 비영리 법인에서 사용료와 재정보조를 받아 운영하며, 도서관은 직영으로 사용료와 재정 보조를 받아 운영한다.

### 2.3 사업 진행 방법 및 BTL 운영 모델

BTL 복합화 학교시설의 사업 진행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청과 시군구가 공동 주무관청으로 집행이 이루어진다. 실무적 이슈의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 이슈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협의회」에 의제를 상정하여 해결하며, 이때 시·도에 파견된 교육협력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시설 복합화의 경우, 단독 사업으로 고시하며 번들링을 지양하도록 한다. 복합화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창의적 설계나 효율적 운영, 사업 시기 조정에 유리하며, 번들링하지 않아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체육·문화 시설의 회원 모집이나 사용료 징수 등 수익성 관련 부분을 위탁할 수 있고 컨소시엄 구성과 같은 초기 단계에서 비영리 법인의 운영주체가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BTL 복합시설의 운영 모델은, 민간의 운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체육 시설 등 사용료에 의한 운영이 가능한 경우는 SPC 위탁을 하고, 사용료에 의한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부 재정보조를 받아 SPC 위탁을 하는 것이다. 다만, 민간 운영 범위의 확대를 전제로 RFP 작성 및 적격성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 3. EDUMAC의 역할

### 3.1 공공 어드바이저리(Advisory)의 필요성

학교시설 복합화는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체가 다원화되고 추진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기피되고 있다. 정부가 2007년 11월 말에 발표한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다양한 시설을 학교 내에 구성하여 학교시설을 복합화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주무관청 또한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별 이해관계가 달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사업 검토 단계에서부터 시행 및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번거로운 의사결정 과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복합화가 일반화되지 않은 현재로서 주무관청의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인식 부족은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단지 예산 확보와 시설 개방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의 마련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복합화 시설과 학교시설과의 관계는 사용자 동선 체계와 공간 구성의 적절성을 고려할 때 비로소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공공 어드버저리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학교시설 복합화의 장점과 필요성을 알림으로써, 관련된 주무관청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 둘째, 공공 어드버저리에서 학교시설 복합화의 주요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경험 축적과 전문 인력의 투입으로 그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셋째,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여러 관련 주체의 입장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발전과 지속적인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넷째,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타당성 및 적합성 분석을 통해 대상 학교 및 적합한 시설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적재적소에 교육 수요자와 지역주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계획·설치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발전의 균형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다양한 사업 주체를 일원화하여 추진함으로써, 추진 방식뿐만 아니라 사업비면에서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 3.2 EDUMAC의 위치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부진한 상태인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꾀하고, 교육적 이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 관련 부처의 유기적인 연계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공공 자문기관으로 EDUMAC(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이 있다.

EDUMAC은 교육시설 BTL 사업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교육시설 핵심영역에 대한 설정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현재 EDUMAC은 교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인적자원부, 국·공립대학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연구 및 사업단계별 매뉴얼 개발, 민간제안서 평가 및 협상, 주무관청 실무자 교육 및 홍보, 관련 DB 구축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운영비 재원은 2006년도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2007년도 이후에는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BTL 사업은 <표 3>에서와 같이 크게 정부시설과 교육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시설은 기획예산처에

표 3. BTL 사업의 기관별 역할 분담

	기관	주요업무
정부 시설	기획예산처	정부 BTL 사업 투자 계획, 규정, 지침
	KDI-PIMAC	국가 수준의 BTL 사업 전문적 지원, 정책 연구
교육 시설	교육부	교육시설 BTL 사업 투자 계획과 지침
	교육청/국립대학	기관별 BTL 사업 투자 계획, 사업 시행 및 관리
	KEDI-EDUMAC	교육시설 BTL 사업의 전문적 지원, 정책연구

서 정부 BTL 사업 투자 계획과 규정 및 지침을, KDI-PIMAC에서 국가 수준의 BTL 사업 전문적 지원과 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시설은 교육부, 교육청 및 국립대학, KEDI(한국교육개발원)-EDUMAC에서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교육시설 BTL 사업 투자 계획과 지침을, 교육청 및 국립대학에서는 기관별 BTL 사업 투자 계획과 사업 시행 및 관리를, KEDI-EDUMAC에서는 교육시설 BTL 사업의 전문적 지원과 정책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 3.3 사업 추진 단계별 EDUMAC의 지원

사업 추진 단계별 EDUMAC의 지원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복합화 대상 학교 발굴·신청·확정 단계와 BTL 사업 추진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복합화 대상 학교 발굴·신청·확정 단계를 살펴 보면, 이 단계에서는 EDUMAC에서 Counseling 역할을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첫째, 국민체육센터와 작은 도서관 등의 부처·시도별 테마 사업, 지역 특구 사업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신·개축 예정 학교에 대한 입지 분석을 제공한다. 둘째, 복합화 대상 시설의 용도와 규모,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 시설 계획을 제공한다. 셋째, 교

표 4. 복합화 추진 단계별 EDUMAC의 지원 사항

구분	역할/비용	지원 사항
복합화 대상학교 발굴·신청·확정 단계	Counseling /무료	지역별 신·개축 예정학교에 대한 입지 분석
		복합화 대상시설의 용도, 규모, 관련 규정 검토
		교육청과 시도/시군구의 협의회 주선 등 가교 역할
		복합화 예비 타당성 검토, 보고서 작성·제출
		SPACE PROGRAM, RFP, 성과요구 수준서 작성
BTL 사업 추진단계	Advisory /유료 (실비부담)	BTL 적격성 조사 용역
		평가/협상 위탁 용역

육청과 시도/시군구의 협의회 주선 등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복합화 예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제공한다. 다섯째, SPACE PROGRAM, RFP, 성과요구수준서를 작성한다. 여섯째, 표준 MOU 초안을 대상 학교에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수정 보완하여 제시한다.

이상과 같은 대상 학교 발굴·신청·확정 단계의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한 자문 역할을 EDUMAC에서 무료로 수행하고 있다.

BTL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실비 부담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그 내용은 BTL 타당성·적격성 조사 용역과 평가 및 협상 위탁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 단계별 지원뿐만 아니라, EDUMAC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현장 지원을 위해 지역별 컨설턴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권역별 컨설턴트는 학교시설 전문가나 학교시설 복합화 연구 및 BTL 유경험자 중에서 지원을 받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컨설턴트는 사업의 발굴·선정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와 기관 간 협의, 지원 및 교육 등을 담당하고, 사업 집행 과정에서는 주민설명회와 설계 및 협상 자문, RFP 및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때 모든 컨설턴트 비용은 EDUMAC에서 지원된다.

### 3.4 복합화 전담기관으로서 EDUMAC의 역할

현재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새로운 협력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대안을 제시한 것이 <그림 2>이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관련된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의 협력 하에 EDUMAC이 전담기관으로서 교육청과 시군구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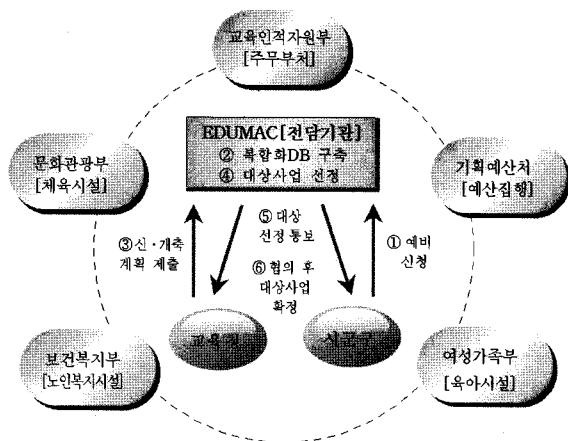


그림 2. BTL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협력체계(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즉, EDUMAC에서는 시군구의 예비신청을 받아 항상 복합화DB를 구축해 두고, 교육청에서 신·개축 계획이 수립되면 시군구와 연결하여 교육청과 시군구, EDUMAC의 협의회를 거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학교시설 복합화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EDUMAC이 학교시설 복합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전담기관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EDUMAC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복합화 시설이 요구되는 정도에 따라 복합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지역과 학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재정 자립도, 교통망, 주민 의식, 기존 시설 현황, 학교 현황 등을 고려한 우선 지원 학교의 선정을 위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둘째, 복합화 대상 학교에 따른 도입 시설의 선택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따른 개별 접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및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 환경의 개발 계획 및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셋째,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도 지역민의 복합화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시설 복합화가 진행된 학교 중에는 주민들이 학교시설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시설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여 그 활용도가 높지 못한 곳이 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이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복합화된 학교시설이 학교와 지역주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복합화는 그 특성상 다양한 정부 관련 부처와 주무관청 등의 효과적인 조율과 이해가 필요하다. 학교시설 복합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따라서 해당 지역 학교의 복합화 필요성이 확인된 사업에 있어서 관련 기관의 이해를 이끌어내고 효과적인 사업진행을 유도할 전문적인 연구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복합화 사업 추진 전담기관으로서 EDUMAC이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더욱 안정적으로 활성화되어 학생과 지역민 모두에게 행복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